

보도시점 2024. 5. 31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4. 5. 31.(금) 15:00

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만든다!

- 발달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자문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‘방통위’)는 5월 31일(금) 발달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분야 현장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‘발달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자문 협의회(이하 협의회)’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그동안 제작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물 제작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. 이에 협의회에서는 방송관계자들이 기획·제작·후반작업 등 제작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‘발달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(안)’을 만들 예정이다.

가이드라인(안)에는 기획안·원고의 작성, 출연자·촬영장소 섭외, 촬영 현장 유의사항, 장르별 후반작업 시 주의할 점 등이 담기며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
한편, 협의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콘텐츠 제작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, 올해 방통위가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콘텐츠의 분야와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. 이와 관련, 방통위는 올해 발달장애인 관련 콘텐츠를 지난해에 비해 50% 증가한 30편을 지원한다.

이런 방송기반국장은 “장애인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”라면서, “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미디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운현 (02-2110-1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영 (02-2110-1298)